

[view] 1번지 자청한 이낙연 vs 빅텐트 만드는 황교안...최후 승자는

기사입력 2020-01-24 00:04 최종수정 2020-01-24 00:17

차기주자 전면 내세운 민주당
김두관 PK 출마...임종석 호출 검토
지역별 리더 띄워 '예비 대선' 승부

보수 대통합에 사활건 황교안
황·유동맹 박차, 공화당 묶기 전략
안철수 끌어들이 외연 확장 노려

중도나 보수나, 갈림길 안철수
손학규와 연대나 신당 창당 모색
결국엔 보수통합 참여 관측도

4·15 총선 승부 가를 변수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왼쪽 사진 오른쪽)와 이해찬 대표 등이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종로 지역 출마를 결정했다. 임현동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우상호 의원과 '총선 스터디'를 했다. 이 대표가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서울 광진을 여론조사에 넣어봤다"고 하자 우 의원이 펄쩍 뛰었다.

"안됩니다, 대표님. (이 전 지사론) 오세훈 못 이깁니다. 광진은 강원도 출신 10%, 호남 출신이 30% 대입입니다. 호남 출신을 넣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인지, 이후 민주당은 호남 출신을 여론조사에 돌렸다. 임종석 전 비서 실장이었다. 그는 전남 장흥 출신이다. 그런 임 전 실장은 민주당 정책 홍보를 위한 TV방송(21일)에 깜짝 등장했다. 바로 그날부터 그의 광진을 출마설이 돌아다녔다.

물론 임 전 실장은 요지부동이다.

"에이 형, 그럼 내가 뭐가 되우." 고교(용문고) 선배인 우 의원이 임 전 실장에게 직접 의중을 확인하자 임 전 실장이 내놓은 답이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역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귀성객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아직 '밀당'(밀고 당기기)이 남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당은 21일 정계은퇴한 '임종석'을 불러냈다.

지난 22일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용처를 정했다. '종로+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이날 경기 김포율이 지역구인 김두관 의원의 경남 양산 재배치 계획도 공개했다. 이낙연의 종로 배치, 김두관의 PK 재배치, 임종석 호출에서 보듯 여당 전략의 기본 틀은 ①차기 대선주자를 총동원해서 ②이들을 야권 거물 후보가 나서는 격전지에 보내고 ③차기주자들은 각 권역에서 포스트(기동)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선을 차기주자들 간의 대결구도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다. 여권의 주요 포스트는 현재 ▶서울=이낙연 ▶대구=김부겸 ▶부산=김영춘 ▶경남=김두관까지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선거전략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다. 역대 어떤 정부나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임기 중·후반 선거는 여당엔 힘든 고비다. 2000년대 들어 집권 3년 차 이후 열린 선거는 세 번. 야당이 두 번, 여당이 한 번 이겼다. 김대중 대통령 3년 차에 열린 2000년 총선(한나라당 승),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총선(민주당 승) 모두 승자는 야당이였다. 집권 1~2년 차에 치른 총선에선 언제나 여당(2004년 열린우리당, 2008년 한나라당 승)이 완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딱 한 번, 여당이 이긴 임기 중·후반 총선이 2012년(MB 5년 차)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MB심판론'을 전면내세웠으나 무력했고, 새누리당이 과반 1당(152석)을 달성했다. 승리 비결은 총선을 '차기주자 박근혜'의 선거로 치렀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공천에서 유세까지 전권을 행사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도 '2012년'과 맥이 통한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뿐 아니라 다른 차기주자들도 총동원해 격전지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는 점이 당시보다 더 나아간 부분이다.

강력한 차기주자의 존재와 부재는 총선 결과로 직결된다. 야당이 이긴 2000년 총선 때도 당시 한나라당엔 대선 지지율 1위였던 이회창 총재가, 야당이 이긴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엔 역시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은 기본이고, 이번엔 보수통합에 올인하고 있다. '통합론'이나 '선거연대론'은 진보진영의 이슈였다. 그게 처음으로 보수진영의 담론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진영이 쪼개진 지 3년 만이다.



안철수(左), 유승민(右)

황 대표는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우리공화당, 무소속 이연주 의원 등과 동시다발로 통합협상을 벌여나가거나, 나갈 계획이다. 이른바 '보수 빅텐트' 구상이다. 하지만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공화당과 새보수당, 안 전 대표를 한집에서 살게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황 대표가 우리공화당을 통합 대상으로 빼놓지 않는 것은 친박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용'일 수 있다. 우리공화당 외의 세력이 통합한다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시나리오인 '황교안+유승민+안철수'의 결합일 것이다. 황 대표로선 보수통합은 물론 외연 확장, 혁신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귀국 후 '중도정당'을 말하고, 보수통합엔 "관심 없다"고 하는데도 한국당이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이유다.

안 전 대표 입장은 모호하다. 보수통합에 몸을 싣지 않는 이상 독자신당을 만들거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비민주당 호남세력과 손잡고 '중도 빅텐트'를 추진하는 길밖에는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보수통합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황·유(황교안-유승민)동맹'만 속도가 나고 있다. 양측은 일단 '2월 중순' 창당이란 시간표까지 도출했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유 의원은 23일 "합당만이 전략인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선거연대론'이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한편 '지역구 세습' 논란에 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은 23일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 아쉬움은 남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위원장은 문 의장이 여섯 번 당선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당 안팎에서 '지역구 세습' 논란을 불렀다.

강민석 정치에디터 mskang@joongang.co.kr

- ▶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 먼지알지!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5&aid=0002970159>
